



2026년 5월 3일(제1298호)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쓰고 버리는 문화가 아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문화를...”

오늘 한국교회는 생명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생명 주일에 대해 생각하며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그 수명이 다하여 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거슬리는 것들을 버립니다. 며칠 전 저도 주변을 깔끔히 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그때 버리지 말걸 하고 후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관계적인 측면으로 옮겨와 봅시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한 적은 없을까요? 우리의 그러한 태도는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듯합니다. 인간은 생기가 있을 때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생기가 꺾이게 되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한 인간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은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생명을 조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주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권한은 오로지 주님께 유보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나에 대한 이해 유무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처방전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우리 각자는 주님의 길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생명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생명 주일을 보내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는 소중함을 되새기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믿고 좇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조영래(하상비오로) 신부
동해(제22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淸호송

사도 6,1-7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1베드 2,4-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4,1-1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천주교 군인 신자와 예비자는 종교에 입문한 군인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천주교는 영세자와 예비자를 비교해 볼 때 예비자보다 영세자가 많다. 그런데 개신교의 경우는 예비자가 세례자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영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약 1 : 3이며, 예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1 : 7의 비율이다. 그리고 영세자와 예비자를 합하여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비교하면 약 1 : 5이다. 원래 천주교와 개신교의 신자 개념이 같지 않으므로 세례 신자와 미세례 신자로 단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세례자 수보다 예비자 수에서 개신교와 훨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전국적인 종교별 신자 분포와 비교할 때는 군에서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3) 보조군목제도

보조군목이란 성직자가 아니면서 군종으로 입대한 이들을 말한다. 보조군목들은 현역 병사를 제외하고는 군종요원 선발시험을 통하여 입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3급 8호 문관으로 임관되었다. 육군에서 보조군목을 채용한 이유는 부대 창설 등으로 인해 군종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개신교측에서 시작되었는데 개신교 각 교파는 북한에서 월남한 목사들을 비롯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신학교 졸업생들을 보조군목이란 이름으로 임명하여 중군케 하였다. 또한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더 많은 보조군목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 | |
|--|---|
| <p>복 음 목 상</p> <p>-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p> <p>의연하게</p> <p>바람은 불 것입니다. 또, 늘 그렇듯, 일은 꼬일지 모릅니다.</p> <p>누가 뭐라 하고, 상황이 바뀌어도.</p> <p>의연하게 나의 길을 가렵니다.</p> <p>하지만, 또, 늘 그렇듯, 동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p> <p>남처럼.</p> | <p>◆ ‘군종의 시김’ 3주치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p>▶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p>  | |

상화이야기

필립보 성인의 순교



시몽 드 보스(Simon de Vos, 1603-1676)
1645-1648년경 제작
구리 위 유화 / 70x87.5cm
릴 시립미술관(Palais des Beaux-Arts de Lille), 프랑스

필립보 성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다고도 한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 위의 필립보 성인이 중앙에 보이고, 주변에는 십자가를 둘러싼 각양각색의 인간군상이 그려져 있다.

십자가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있는 인물은 폭력을 행사할 거리가 더 남았는지 몽둥이를 내려치려는 순간의 모습이고, 밑에 있는 이도 힘껏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말 위에 올라탄 군인들의 망토와 깃발, 말의 갈기와 역동적인 몸짓이 어우러져 이 순간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인물들의 묘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전적으로 타인의 폭력에 내맡겨진 필립보 성인의 모습과 대비되어 세상의 폭력과 혼란과 잔혹함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한다. 또, 언덕 위의 아이들과 저 멀리 배경에서 보이는 행인들에게서는 이 사건이 단지 흥미로운 사건에 지나지 않는 무관심의 감정도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소용돌이 같은 폭력 속에서도, 필립보 성인의 존재는 오히려 더욱 고요하고 단단하게 느껴진다. 강한 빛이 그의 몸을 비추며 어둠 속에서 그를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육체는 고통받고 있지만 영혼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위로 나아가는 듯하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해군항공사령부 박재술 신부

◆ 교구장 통장

- 성요셉(의무사)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3일(주일)
- 2026년 '통일 기원 기도의 날'
 때: 5월 9일(토) 10:00, 고성 통일전망대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